

# 고교 근거리 배정에 명문학군 쏠림 우려

광주교육정책연구소 2차 공청회 제안...학부모 고민

학교 선택권 제한파라 ‘학군 이사’ 가능성 높아져

광주 고등학교 배정 방식이 바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학부모들의 고민이 시작됐다.

특히 2018학년도부터 적용되는 고교 배정 방식으로 자칫 ‘명문 학군’이 형성될 지 모른다는 우려가 터져나오면서 ‘학군(學群) 이사’를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부모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교육정책연구소가 최근 ‘고교배정 방식 개선’을 위한 2차 공청회’에서 제안한 고교배정방식은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한 100% 근거리 배정 ▲선지원 방식(40%→20%) 축소 ▲선지원 폐지 및 현행 후배정 방식 유지 등 크게 3가지다.

현행 고교 배정 방식과 가장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 안(案)은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한 100% 근거리 배정’ 방식이다. ‘학교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 대신, 중학교 인근 거점지 등을 기준으로 학교가 배정되는 시스템이다.

교육정책연구소의 설문조사에서도 ‘100% 근거리 배정’의 경우 학생(47.6%), 학부모(65.3%), 교원(60.0%), 시민(67.8%) 상당수가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 선택권을 주다 보니 선호학교에 몰리는 경향이 있었던 전례를 감안, 선택권을 제한하고 고루 균등 배정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문제는 통학 거리가 30분 이내인 학교

에 무조건 배정한다는 방식이지만 그 지역에 살거나 이사를 가면 이른바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당연히 광주의 ‘8학군’, ‘강남’으로 불리는 봉선동으로 ‘원하면 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학부모들이 적지 않다.

현행 거리와 관계없이 고교를 선택할 수 있는 선지원추첨배정(선지원)으로 정원의 40%를 선발하는 상황에서도 선지원 학생들의 3% 가량만 통학 거리가 40분이 넘는 원거리 학교를 지원했다는 게 교육정책연구소 입장이다.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한 100% 근거리 배정’을 하더라도 ‘학군 이사’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는 얘기다.

하지만 3%의 학생들이라도 최상위권이 몰리게 되면 ‘명문 학군’이 노골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온다.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 더 비싼 임대료와 집값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칫 빈부 격차의 문제로 해석될 여지도 존재한다.

당시 공청회에 참석했던 정미경 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연합 대표도 “학생, 학부모가 명문이라 인정한 지역에 학생 쏠림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 선지원 축소, 선지원 폐지 방식의 경우도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반대 의 목소리가 높은 형편이다.

한편, 광주시 교육청은 교육정책연구소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2월까지 전문가 의견, 공청회, 학부모 설명회를 거쳐 최종 배정 방식을 결정해 2018학년도부터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30  
해질녘 17:21

달출몰 06:53  
달지름 17:30

주말에는 맑아요

대체로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다.

지역별 날씨 (℃)

|    |        |       |     |        |       |
|----|--------|-------|-----|--------|-------|
| 광주 | 비온뒤 맑음 | 9/11  | 보성  | 흐리고한때비 | 10/10 |
| 목포 | 구름많음   | 10/11 | 순천  | 흐리고한때비 | 11/12 |
| 여수 | 흐리고한때비 | 11/12 | 영광  | 구름많음   | 9/11  |
| 나주 | 비온뒤 맑음 | 8/11  | 진도  | 구름많음   | 10/11 |
| 완도 | 흐리고한때비 | 10/11 | 전주  | 구름많음   | 7/11  |
| 구례 | 흐리고한때비 | 8/12  | 군산  | 구름많음   | 7/11  |
| 강진 | 흐리고한때비 | 10/11 | 남원  | 흐리고한때비 | 7/11  |
| 해남 | 비온뒤 맑음 | 10/11 | 축산도 | 구름많음   | 10/11 |
| 장성 | 구름많음   | 8/10  |     |        |       |

바다 날씨

|    | 오전                  | 오후           |
|----|---------------------|--------------|
| 서해 | 앞바다 북서~북 1.0~2.0    | 북~북동 1.0~2.0 |
| 남부 | 면바다 북서~북 2.0~3.0    | 북~북동 1.5~3.0 |
| 남해 | 앞바다 북서~북 1.0~2.0    | 북동~동 1.0~2.0 |
| 서부 | 면바다(동) 북서~북 1.5~3.0 | 북동~동 1.5~3.0 |
| 남부 | 면바다(서) 북서~북 1.5~2.5 | 북~북동 2.0~3.0 |

생활지수

|      |    |
|------|----|
| 체감온도 | 관심 |
| 동파   | 낮음 |
| 뇌졸중  | 보통 |

주간 날씨

| 12(토) | 13(일) | 14(월) | 15(화) | 16(수) | 17(목) | 18(금) |
|-------|-------|-------|-------|-------|-------|-------|
|       |       |       |       |       |       |       |
| 7/13  | 5/12  | 5/9   | 5/8   | 2/4   | 0/5   | 0/7   |

## 대법 “4대강 사업 적법”

대법원3부는 10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영산강·한강·낙동강 사업을 취소하라며 ‘국민소송단’이 낸 소송 3건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영산강·한강 소송은 2심 판결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낙동강 사건은 “국가재정법 위반이지만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취소하지는 않는다”고 본 2심 판결을 깨고 전부 적법하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영산강사건은 박보영 대법관이, 한강 사건은 김용덕 대법관이, 낙동강 사건은 권순일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도 이날 금강살리기 사업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2009~2010년 국민소송단이 제기한 4건의 행정소송이 모두 마무리됐다.

/연합뉴스



“광주시청 실외 스케이트장 오세요” 10일 오후 광주의 겨울철 놀이 명소로 자리 잡은 광주시청 야외스케이트장이 개장 준비를 마치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11일 개장하는 스케이트장은 내년 2월2일까지 운영되며, 입장료는 1시간당 1000원(장비 대여료 포함)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장애인상담전화’ 내년 중단 위기

市 “구청과 업무 동일”... 장애인단체 “실적 급급해 장애인 요구 묵살”

광주지역 장애인들의 고충 상담 역할을 해온 광주장애인전화(062-513-6495)와 광주장애인차별상담전화(1577-1330)가 내년부터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광주시가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을 정비하면서 ‘구청에서도 같은 업무를 한다’며 10년 넘게 해온 예산 지원을 내년부터 중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장애인단체들은 “광주시가 유사·중복 사업 정비실적을 늘리기 위해 복지의 가

장 기반이 되는 상담 통로까지 막아 버렸다”며 반발하고 있다.

10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장애인총연합회가 운영하는 광주 장애인전화의 운영비 2200만원과 실로암사람들이 운영하는 장애인차별상담전화의 운영비 90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2001년 11월부터 운영되어온 장애인전화는 지역사와 장애인들에게 복지 정보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

왔다. 광주시는 상담 취지에 공감, 운영 초기부터 15년째 예산을 지원해 왔다.

장애인차별전화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장애인 차별과 관련된 상담을 목적으로 지난 2009년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갔으며, 그해 7월 전국네트워크가 구성됐다. 광주시는 지난 2012년부터 예산을 지원했다.

지역성에 기반하고 있는 장애인전화와 장애인차별상담전화는 상담과 함께 방문

상담, 민원 대행과 같은 업무를 함께 하면서 상담 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전화는 지난해 406건에서 올해 470건으로 늘었고, 장애인차별상담전화는 지난 2012년 34건에서 올해(11월) 233건으로 급증했다.

광주장애인총연합회 관계자는 “장애인 상담전화는 유사·중복사업 정비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는데 실적에 급급한 광주시가 장애인들의 요구를 묵살한 채 일방적으로 예산 지원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자치구와 보건복지부 등에서도 하고 있는 상담 업무를 목적으로 특정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경민기자 kki@

## 반성문 내고도 범행 ‘거짓 반성’ 엄벌

광주지검, 폭력·무면허 음주운전 등 7명 구속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선처해주시요.”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해 선처를 받던 40차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했고, 15차례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 기록을 분석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변명에 불과한데도 선처해주고 양형 사유로 잡착하는 게 맞지 않다고 판단해 이전 기록을 다시 확인해 거짓 반성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유에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들의 반성문은 거짓이었다. 선처를 받은 뒤 범행을 반복했다는 것이다. 일부는 최대 40차례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했고, 15차례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들의 범죄 기록을 분석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변명에 불과한데도 선처해주고 양형 사유로 잡착하는 게 맞지 않다고 판단해 이전 기록을 다시 확인해 거짓 반성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장흥지청, 선거때 금품 건넨 새마을금고 이사장 구속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10일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과정에서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A새마을금고 이사장 이모(51)씨를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치른 장흥 A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대의원 B씨 등 3명에게 각 100만원의 금품과 27만원 상당의 음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사장 선거과정에서 대의원들

에게 수백만원씩 금품이 오갔다는 정보를 입수, 지난달 A새마을금고 사무실과 투표함 등을 압수수색하고 통화내역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3명의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건넨받았다는 자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씨가 또 다른 대의원에게 금품을 건넸을 것으로 보고 전체 대의원 105명과 선거과정에서 이씨를 지지했던 주변인물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나주로컬푸드

NAJU LOCAL FOOD

지역을 이롭게 하는 소비

믿을 수 있는 선택

찾아오시는 길

운영시간

오전 10시 ~ 저녁 9시

(연중개장, 명절당일 휴무)

전화

061) 333-9081~3

나주시

나주시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우리 가족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는 없을까?’

고민하는 주부님들을 위한 해답! 로컬푸드에 있습니다.

로컬푸드란?

생산, 유통, 소비가 모두 근거리에서 이뤄지며,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판매되는 ‘얼굴 있는 먹거리’입니다.

1. 국내산도 믿을 수 없대구요? 나주산 농산물만 있습니다.

2. 신선한 농산물을 1년 내내 공급합니다.

3. 상시적인 농약 잔류 검사로 농산물의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4. 유통거품이 속 빠진 합리적인 가격을 실현합니다.

로컬푸드직매장 빛가람점에 오시면 만날 수 있는, 300여가지의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산 먹거리

- 상추, 배추, 미나리, 가지, 애호박, 옥수수 등 신선한 반찬거리
- 여주, 삼백초, 자소엽, 쑥이밥, 아란문, 와송, 초석잠 등 다양한 건강·향토 먹거리
- 전날 낫은 싱싱한 유정란
- 지역산 농산물로 만들어 더욱 맛깔 나는 남도 반찬들
- 화학개량제, 유화제 등 화학첨가물을 사용하지 않고 만든 우리밀·쌀빵
- 청국장, 된장 등 지역의 믿을 수 있는 원재료를 사용한 고품질의 가공식품
- 27가지의 한약재를 먹어 사육한 친환경 유황포크 (돼지고기)